남산에 '실감형 스튜디오' 문 연다… AR·VR 콘텐츠 제작

서울시,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
아카이빙 통해 실감 콘텐츠 확보
실감형 스튜디오, 민간 위탁 운영

남산 실감형 창작스튜디오(가칭) 조감도. /서울시

내년 초 서울 중구에 비대면 영상 전문 창작시설이 생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실감형 창작스튜디오(가칭)'가 2022년 3월 중구 퇴계로(26가길 82)에 문을 연다. 실감형스튜디오는 확장현실(XR) 그래픽 기술 기반 가상 배경을 활용,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실이다.

남산 실감형 창작스튜디오(이하 남산스튜디오)는 최첨단 음향·영상·조명 설비를 갖춘 미래형 영상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남산창작센터는 당초 시설 노후화와 구조 안전 문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제로에너지 건물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될 예정이었다"면서 "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첨단시설로 활용하도록 기능을 보강, 미래 예술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스튜디오로 개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산스튜디오는 총 1996㎡(지상 2층) 규모로, ▲XR 스튜디오 ▲VFX 스튜디오 ▲부조·송출주조·기계실 ▲믹스마스터실 ▲녹음 스튜디오 ▲종합편집·색보정실 ▲편집실 ▲분장실 ▲콘텐츠 제작실 등이 들어선다.

눈여겨볼 만한 시설은 XR 스튜디오(LED벽을 이용한 확장형 실감 영상 제작 작업실)와 VFX 스튜디오(크로마·LED벽을 활용한 가상현실 효과 영상 제작 공간)다.

시는 남산스튜디오를 기초예술과 영상산업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멀티 스튜디오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남산스튜디오에 콘텐츠 사전제작부터 후반작업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하고, 전문 송출 플랫폼을 만들어 미디어 콘텐츠를 송출할 방침이다. 또 아카이빙을 통해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확보하고, 국내외 유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남산 실감형스튜디오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영상제작과 관련 분야 활동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직 구성으로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은 남산스튜디오 시설 관리와 영상 관련 사업 운영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시로부터 남산스튜디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실감형 영상제작 및 융합예술 지원, 영상 그래픽 인력양성, XR·VFX 융합 공연예술 축제 기획, 미디어아트 연구개발(R&D) 제작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1월 공모를 통해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 3월 남산스튜디오를 개관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공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혈세 낭비 막는다

경기도 발주 100억 미만 공공 공사
도지사 재량항목 활용… 방안 마련

앞으로 경기도 발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이 적용,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 원, 표준품셈이 90억 원일 때, 차액인 4억 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그간 표준시장단가를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 반대로 장벽에 부딪혔다.

지난 6월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6월 8일)을 보내고 간담회(6월 10일)를 개최했으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며 재차 반대했고 건교위는 내부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사는 간담회 당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 받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장애인버스 운영 모습.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백신접종 지원 버스 투입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장애인버스 2대를 투입해 모든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버스는 주말을 제외한 주 5일간 운영된다. 장애인버스는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특별 교통수단이다. 시중에 있는 대형버스에 휠체어 리프트와 고정장치를 추가 장착해 5~8명의 장애인을 포함 최대 29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장애인버스는 복지시설에서 4인 이상의 탑승자를 모집한 뒤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단체 예약·신청을 하면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 인력도 동행해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공유경제 활용 '주차공유제' 시행

주차난 해소에 탁월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함께 쓰는 공유경제를 차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공유제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

밤 시간대에는 활용되지 않는 학교를 개방해 주차장을 공유한다던가, 낮 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주차공유제의 사례이다. 한정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주차난 해소에 탁월하다.

이번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고양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1990년대 조성된 고양시의 원도심은 조성 당시 현행법에 비해 매우 완화된 법정주차면수가 적용돼,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 시는 기존 주차공유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기획해, 주차난 잡기에 나섰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서울시

81곳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

서울시는 북한산, 도봉산, 안산, 인왕산, 용마산, 수락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 81곳의 우기 대비 산사태 예방사업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작년 10월 주민, 산림·토질 기술사,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여 산사태 취약지역 81곳을 추려냈다. 이후 시는 취약지역에 산림재해에 강한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사면정비, 계류정비를 실시했다. 산사태 예방사업에는 총 114억원이 투입됐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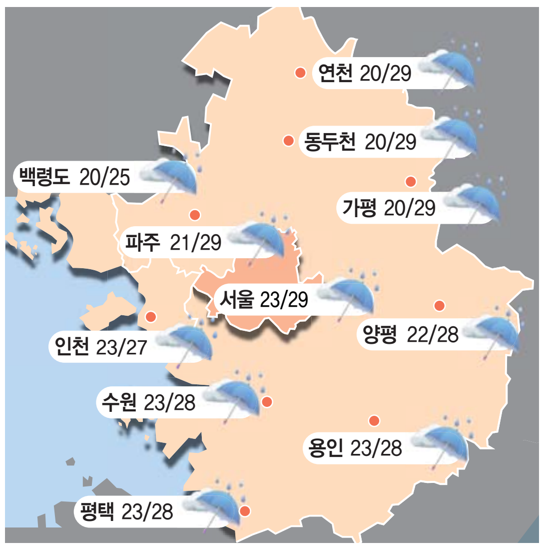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17 | 해짐 / 19:56

7월 7일 (水)
음력 : 5월 28일

수도권 날씨
23~2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靑 '도쿄올림픽 文방문 보도' 일축… "日, 추측성 보도"
▲위안부 상징 '소녀상', 잇따른 항의에도 日서 다시 전시 시작 /사진 뉴시스

▲독일, 영국 등 5개국 입국제한 완화… 英 여름휴가 '꿈틀'
▲파우치 "美 6월 사망 99%가 백신 미접종자"

▲이스라엘-한국, 총 70만회분 화이자 백신 교환 협정
▲"중국 6월 신차 판매 192만대… 전년비 16.3% 감소" /사진 뉴시스